

**서연용 교수 <취업교육 및 교육인프라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문**  
**(2018년 4월 3일 대구대학교 발전포럼)**

토론자: 서요성 (독어독문학과)

지금껏 교수님이 보여주신 대구대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교심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취업은 수치나 지표의 차원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사회와 만나서 자아를 실현하는 주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130학점을 수강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전공 전문 지식도 없고 기본 소양도 없다면, 그 교육과정은 성공한 것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학의 위상으로 볼 때 취업률마저 높지 않다면 앞으로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단지 졸업년도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통해서 그 대학의, 그 학과의 취업률을 일괄 평가하는 것도 헛소리 납득할 수 없습니다. 4년의 대학 재학은 사실 교양 있는 전문가가 되기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며, 학생들이 한 사회 조직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이직이나 전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발제문 2면에서 교수님은 지난 4년 동안 대구대학교 13개 단과대학의 취업률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각 단과대학의 취업률 및 취업률 순위가 거의 일정한 점입니다. 어느 단과대학은 항상 80% 이상을, 다른 단과대학은 거의 50% 정도를, 또 다른 단과대학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강한 단과대학의 이유 중의 한 가지로 교수님께서서는 면허나 자격증 취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미래의 취업환경을 예측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공계는 좋고, 인문사회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3페이지의 **W경로에 의거하여 단과대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발표 PPT 8면에서 단과대 차원에서의 **산학협력위원회 설치**도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제 질문은 앞으로의 취업대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드리면,

첫째, 지금 우리 대학 취업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발표 PPT 6, 7면에서 취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업교과목의 교양필수로의 전환과 자격, 면허취득 교과목 편성은 지금의 교양/전공 편성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전공 졸업으로 회사나 기관에 입사하는 것이 선순환적 구조라고 할 때, 위에 말씀하신 취업 우선의 교과목 편성은 자칫 학문 전당인 대학이 취업 중심의 전문대학과 어떤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을 강조하다보면, 학과 공부와 취업 공부가 완전히 별개가 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둘째, 본부와 교수의 역할이 학생 취업의 상향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입  
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일은 대학의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껏 교수는 전공이나 교양을 열심히 가르치고, 본부도 여러 취업기회 및 취업환경을  
제공하는데 나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의 노력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기대치에 별로  
다가가지 않았고, 그 점은 취업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희망”, “비전”,  
“열정”의 학교 분위기는 교수나 본부로부터 학생들에게로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방법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4.1.

서요성 드림